

南道 미술 한자리...소장품으로 '예향'의 뿌리 짚다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특별전 '예향, 남도 미술의 맥' 상설 운영

한국화, 서양화, 조각, 아카이브...작가 63명 계보·흐름 조명
원류에서 축적된 시간, 예술의 가치...창조적 계승·발전 모색

남도를 '예향'이라 부르게 한 미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되짚는 전시가 마련됐다. 지역 미술의 출발과 전개, 그리고 세대를 잇는 변화까지를 소장품을 통해 조망하며 남도 미술이 지닌 미술사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자리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소장품특별전 '예향, 남도 미술의 맥'을 상설로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를 찾는 관람객이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남도 미술의 원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남도는 남종화 전통에서부터 채색화, 서양화, 추상미술,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가 시적이고 발전한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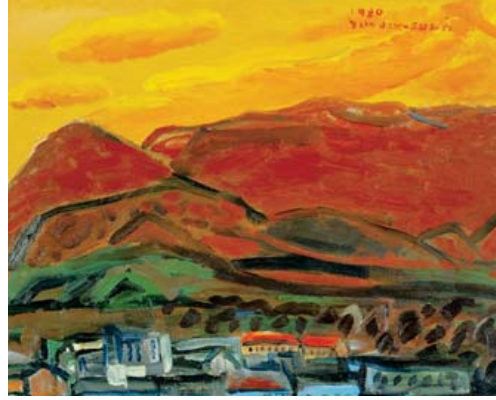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도 화단 1세대 작가를 중심으로 연구와 조명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세대 작가의 작업까지 소개하며 미술사적 맥락을 이어간

다. 작가 63명의 작품을 통해 남도 미술의 계보와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 3개 분야와 아카이브로 구성됐다. 특히 남도를 예향으로 인식하게 만든 핵심 축으로 한국화를 강조한다.

조선 말 허련 이후 허백련과 허건으로 이어지는 남종화 계보는 남도 미술의 중요한 뿌리를 형성한다. 허백련은 남종화의 정신과 기법 위에 남도 실경을 도입해 독자적인 양식을 구축했고, 허건은 현실적 시각과 사생을 바탕으로 또 다른 흐름을 이어갔다. 여기에 천경자, 안동숙 등이 채색을 활용한 새로운 한국화 양식을 선보이며 남도 한국화의 확장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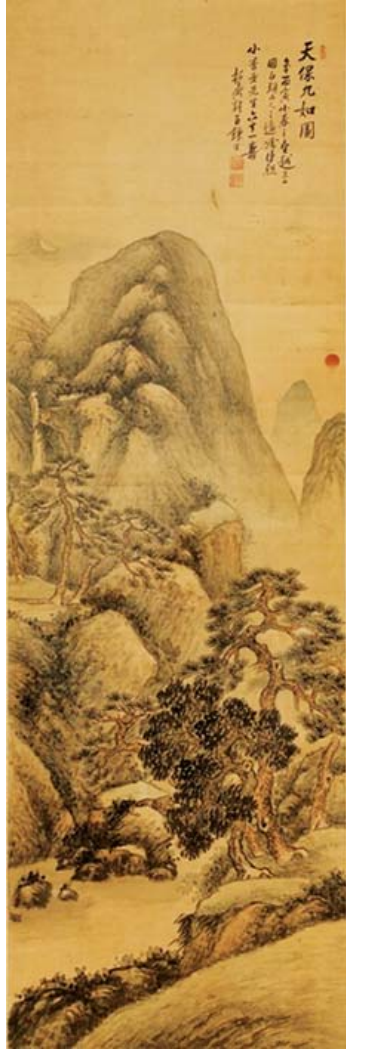
서양화와 추상미술 역시 남도 미술의 중요한 축이다. 광복 이후 오지호, 임치순, 손동 등을 중심으로 구상 회화의 전통이 자리 잡았고, 김환기, 강용운, 양수아 등은 추상미술의 기반을 형성했다. 이후 양인옥, 오승운, 황영성 등은 구상미술을, 김용복, 최종섭, 김종일, 우재길 등은 추



임직순작 '무등산의 노을'



사진 위로부터 시계방향 허건작 '하경산수', 허백련작 '천보구여도', 김영중작 '화목'



상미술을 이어가며 서로 다른 방향 속에서 남도 서양화의 흐름을 확장시켰다.

조각 분야에서는 김영중, 김천식, 탁연하 등 1세대 작가들이 한국적 조형성과 추상 조형, 기념비 조각 등에서 성과를 남겼다. 1970년대 이후에는 지역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조각 전공자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양식과 사조가 전개됐다.

윤의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남도는 한국 미술사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많은 미술인이 활동한 지역이며 다양한 장르의 미술이 활발하게 전개된 예향"이라며 "남도 미술을 통해 예술의 의미와 가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수채화로 풀어낸 자연과 삶의 순환

한부철 초대전, 내달 20일까지 드영미술관

자연의 순환과 삶의 의미를 수채로 펼쳐낸 작품 전시가 마련됐다.

드영미술관은 2026 기획초대전으로 오는 5월 20일까지 한부철 개인전 '꽃·지면 피터라'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30년 이상 수채화 작업을 이어온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하고, 자연 속에서 인간의 삶과 존재를 성찰해 온 시선을 소개하는 자리다. 전시 주제인 '꽃·지면 피터라'는 '꽃이 지는 순간은 끝이 아닌, 다시 피어남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자연 순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는 자연을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안에 축적된 시간과 기억, 감정의 층위를 수채의 물성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종이 위에 스며들고 번지는 색과 빛은 수채 특유의 맑고 깊은 감각을 드러내며, 자연의 호흡과 생명의 흐름을 섬세하게 시각화한다.

작품에는 꽃잎과 연잎, 들꽃, 바다, 밤하늘, 장독 등 다양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자연의 질서와 함께 인간 삶의 유한함, 회복, 상실, 기억의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같은 소재를 다루면서도 매번 다른 정서와 감각을 만들어



'숨'

낸다는 점도 특징이다. 꽃이 지는 장면은 삶의 유한성을, 바다와 하늘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깊은 시간을 뜻한다. 장독과 사발 같은 일상의 사물은 어머니의 기억과 삶의 근원을 나타낸다.

전시는 '숨·쉬다', '사유하다', '바라보다', '담다' 시리즈를 중심으로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된다. '숨·쉬다' 연작에선 생명의 회복과 치유의 감각을, '사유하다', '바라보다', '담다' 시리즈를 통해서도 삶과 존재에 대한 성찰을 풀어낸다. 마지막 전시실은 청록빛 바다와 밤 풍경을 통해 고요한 위로와 사유를 전한다.

/최명진 기자

실내악 선율로 들려주는 봄의 낭만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II 'April Romance', 23일 ACC 예술극장2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봄의 정서를 담은 실내악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체임버 시리즈II 'April Romance'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향 단원 바이올린 이준, 비올라 양신애, 첼로 나유빈과 피아니스트 이철민이 출연해 피아노와 현악기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펼친다.

'April Romance'는 4월의 따뜻한 기운과 낭만적인 감성을 실내악으로 풀어낸 프로그램이다.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슈만과 러시아 작곡가 아렌스키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로 다른 음악적 배경에서 탄생한 실내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연의 첫 곡은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 1번 E♭ 장조 Op.47'이다. 1842년, 이른바 '실내악의 해'에 작곡된 이 작품은 피아노와 현악기의 조화가 돋보이는 대표적인 낭만주의 실내악곡으로 꼽힌다. 각 악장은 주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균형 잡힌 구성 속에서 악기 간의 섬세한 호흡을 보여준다.



이어 아렌스키의 '피아노 삼중주 1번 D단조 Op.32'가 연주된다. 1894년 첼리스트 카를 다비도프를 추모하며 작곡된 작품으로, 피아노·바이올린·첼로 편성으로 구성됐다. 추모곡의 성격과 함께 러시아 낭만주의 특유의 선율미가 담겨 있으며, 느린 악장과 빠른 악장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전개된다.

공연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예스24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전석 1만원이다.

/최명진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